

<尹鶴 誌石>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Memorial Stone of Yun Gwan

朴文烈(Moon-Year Park)*

<목 차>

- | | |
|---------------------------|-----------------------|
| I. 緒論 | 2. 先祖의 系譜 |
| II. 誌石의 種類와 性格 | 3. 性品과 行蹟 |
| 1. 誌石의 由來와 種類 | 4. 官職 |
| 2. 誌石의 性格 | 5. 生沒과 葬禮 |
| III. <尹鶴 誌石>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 | 6. 後孫의 系譜 |
| 1. 誌石의 圖版과 原文 | 7. 銘文 |
| 2. 誌石文의 翻譯 | 8. 誌石文의 撰者 |
| IV. 誌石文의 內容 | V. <尹鶴 誌石>의 製作者와 製作時期 |
| 1. 表題와 姓 및 諱 | VI. 結論 |

초 록

본고는 김연수에 의하여 찬술된 <윤관 지석>에 관한 금석학적 연구이다. 지석의 재질은 오석이며, 크기는 세로 25.0cm, 가로 31.0cm, 두께 2.5이다. 지석문은 양면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으며, 주로 윤관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다.

주제어 : 지석, 윤관, 김연수, 금석학, 해서체, 음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 physical and textual characteristics on an epigraph, the Memorial Stone of Yun Gwan(윤관 지석). This was edited by Kim Yeon-Su. On the view of physical point, the Memorial Stone is made of black stone and its size is 25.0cm high, 31.0cm wide, and 2.5cm thick. On the view of textual point, the text of Memorial Stone is about the career of Yun Gwan, and the printed style of writing is by depressed engraving on both side black stone plane.

Key Words : epigraphy, memorial stone, yun gwan, kim yeon-su,
the printed style of writing, depressed engraving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parkmoon@cju.ac.kr)

· 접수일 : 2004. 11. 20 · 최초심사일 : 2004. 11. 25 · 최종심사일 : 2004. 12. 10

I. 緒論

誌石¹⁾은 卒去한 사람의 人的事項, 墓의 위치와 坐向 등을 기록하여 묘에 함께 묻은 版石이나 陶版 등을 말한다. 지석에는 本貫, 諱,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가족관계, 묘의 위치와 坐向 등의 내용이 기록되므로 被葬者의 삶에 흔적은 물론 同時代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金石學的 資料이다.

지석은 글자 그대로 돌에 새긴 것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석은 고려시대까지는 돌에 새긴 것이 많았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하게 발전되면서 지석의 재질과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다. 지석의 재질에 있어서 瓦器誌石, 陶製誌石, 土製誌石, 石製誌石, 甕器誌石 등의 명칭은 지석의 재질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지석의 형태에 있어서는 四角版形, 末角四角版形, 圓版形, 墓碣形 등의 平面形誌石이 있었으며 항아리형, 圓筒形, 硯床形, 벼루형, 대접형, 접시형, 주발형, 瓶形 등의 立體形誌石도 있었다. 또한 지석 내용의 기록방식에 있어서도 表題文만 기록한 것, 표제문과 誌文을 기록한 것, 표제문과 지문과 銘文을 함께 기록한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제문은 지석의 제목으로 누구의 지석인지 만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서문이며, 지문은 일대기를 산문체로 적은 것이며, 명문은 공덕과 인품을 운문체로 찬양한 것이다.

따라서 지석은 기록의 방식과 내용은 국문학과 한문학의 연구에, 제작기법이나 형태는 미술사와 도예사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역사학과 민속학 분야에서는 당시의 장례풍속과 친족제도 및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나아가 서예사와 서지학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지석에 기록된 문장을 흔히 誌文²⁾ 또는 墓誌³⁾라고도 일컫고 있으나, 이는 지석에 실린 독특한 문체의 글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석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형태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誌石版'으로, 誌文의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誌石文'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고구하고자 하는 지석은 <尹鶴 誌石>이다. 현재 <尹鶴 誌石>은 淸州大學校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尹鶴 誌石>의 傳來에 대하여는 자세한 전래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유물로 수장·관리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을 뿐⁴⁾이다. <尹鶴 誌石>에 기록된 지석문은 金延壽(?~1515)에 의하여 撰述되었다. 그러나 <尹鶴 誌石>의 被葬者인 윤관(1451~1504)이나 지석문의 찬술자인 김연수에 관하여는 달리 크게 알려지거나 본

1) 誌石은 死者의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板石이나 陶版으로 조상의 계보, 출생일과 사망일, 평생의 행적, 가족 관계, 무덤의 소재와 방향 등이 기록되며 무덤 앞이나 옆에 묻혀 있다.

2) 誌文은 死者의 이름과 出生日과 死日, 행적, 무덤의 위치와 坐向 따위를 적은 글을 의미하는 것이다.

3) 墓誌는 死者의 성명, 신분, 행적 따위를 기록한 글로 砂器版이나 돌에 새겨 무덤 옆에 묻거나 관이나 壺에 직접 새기기도 한다. 擴誌·宅兆라고도 한다.

4) 淸州大學校博物館 編, 博物館圖錄(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0), p.160.

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본고는 <尹鶴 誌石>의 현상과 지식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정리하여 윤관과 김연수의 傳記資料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들에 관련되는 각종 연구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II. 誌石의 種類와 性格

碑石이 묘의 앞에 세우는 것이라면 誌石은 묘의 속에 묻히는 것으로 제2의 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비석과 지식은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한 편이다.

비석이나 비문에 관한 연구는 금석학으로 간주되어 적지 않은 연구의 결과물들이 간행되어 나왔으나, 지식이나 지식문은 아직까지 금석학적 연구에서 도외시되어 단편적인 연구결과가 발표)

5) 誌石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 姜大德, “朝鮮時代 江陵地方 墓誌 小考,” 嶺東文化, 第2號(1986)
- 姜大德, “江陵 大田洞 出土 鍾城教授 李守渾 墓誌,” 關東史學, 第4輯(1989)
- 高裕燮, “申世霖의 墓誌銘,” 韓國美術文化論叢(서울: 通文館, 1966)
- 金得豊, “서울市 九老洞 出土 淸華白磁 朴慶俊父子 墓誌,” 美術資料, 第34號(1984)
- 金龍善, “金仲文墓誌銘,” 美術資料, 第24號(1979)
- 金龍善, “高麗墓誌銘 一覽,” 韓國學報(1984.)
- 金龍善, “高麗墓誌銘 二例,” 李丙燾九旬紀念 韓國歷史論叢(1987)
- 金龍善, “新資料 高麗墓誌銘 十七點,” 歷史學報, 第117輯(1988)
- 文明大, “宜人韓氏墓誌銘,” 考古美術, 第8卷, 第5號(1967)
- 閔賢九, “朴康 墓誌銘의 檢討,” 歷史學研究, 第5輯(1974)
- 朴文烈, “洪廷命 誌石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3), pp.135~154.
- 朴漢高, “韓國墓誌에 관한 一研究,” 人文學研究, 第16輯(1982)
- 裴永東, “朝鮮時代 誌石의 性格과 變遷,”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 研究(1992), pp.189~231.
- 成周鐸, “武寧王陵 出土 誌石에 關한 研究,” 百濟文化, 第21輯(1991)
- 大谷光男, “百濟武寧王. 同王妃의 墓誌에 보이는 曆法에 대하여,” 考古美術, 第119號(1973)
- 李丙燾, “百濟武寧王陵 出土 誌石에 대하여,” 學術院論文集, 第11輯(1972)
- 李殷晟, “武寧王陵의 誌石과 元嘉曆法,” 東方學志, 第43輯(1984)
- 張哲秀, “誌石의 發生에 대한 一考察,” 李杜鉉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서울: 한샘문화사, 1987)
- 張哲秀, “誌石의 名稱과 種類에 대한 一考察,” 文化人類學論叢(서울: 同論叢刊行委員會, 1989)
- 張哲秀, “지식(誌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第21卷(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鄭求福, “武寧王 誌石 解釋에 대한 一考,” 宋浚浩教授停年紀念論叢(1987)
- 鄭良謨, “安宗茂의 白磁墓誌,” 考古美術, 第4卷, 第2號(1963)
- 鄭良謨, “金在仁의 白磁墓誌,” 考古美術, 第4卷, 第5號(1963)
- 鄭良謨, “金景漢 白磁墓誌,” 考古美術, 第4卷, 第6號(1963)
- 鄭良謨, “宣德十年銘 粉靑沙器墓誌,” 美術資料, 第7號(1963)
- 崔夢龍, “李朝墓誌 數例,” 考古美術, 第129·130號(1976)

되었을 뿐 종합적인 연구결과물로 간행된 바⁶⁾는 드물다.

또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지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형편이다.

지석이 死者의 傳記資料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석이나 지석문의 연구는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誌石의 由來와 種類

지석은 원래 중국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발생의 정확한 시기는 자세하지 않다. 지금까지 대 체로 春秋時代(BC 722~481)기원설, 前漢時代(BC 206~AD 24)기원설, 魏晉時代(220~265)기원설, 劉宋時代(420~471)기원설 등이 있다.

그러나 춘추시대에는 石槨이나 黃砂에 묘명을 새겼을 뿐이었다. 전한시대에는 독립된 版石에 死者의 벼슬과 이름을 새긴 誌銘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정형화된 운문체의 銘文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자료가 墓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魏晉時代에는 死者가 겪은 사건과 그의 一代記를 산문으로 서술한 誌文이 쓰이기 시작하여 전형적인 지석의 低石의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劉宋時代에는 지석에 명문과 지문이 함께 수록되기 시작하고 蓋石과 低石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형식의 정방형 지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誌石制度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로 알려지고 있다. 고구려의 冬壽誌石(357)과 牟頭婁誌石(5세기 중엽)을 비롯하여 6세기 전반의 백제의 武寧王과 王妃의 誌石 등은 비교적 빠른 시기의 우리나라 지석이다. 그 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지석은 계속하여 제작되었는데 전해지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구려의 泉男生誌石(679)과 백제의 扶餘隆誌石(682) 등이 있다.

한편, 지석의 명칭에 따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⁷⁾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鄭劑奎·金貞熙, “崇禎 甲午年銘 李齊說 誌石,” 忠清大學博物館報(2002), pp.80~100.

崔夢龍, “全南地方 所在의 李朝墓誌,” 古文化, 第15輯(1976)

崔虎林, “高麗初期 墓誌에 관한 一考察,” 韓國學論集, 第6輯(1984)

崔虎林, “朝鮮時代 墓誌의 種類와 形態에 관한 研究,” 古文化, 第25輯(1984)

許興植, “定安大君 墓誌銘,” 韓國中世史會史資料集(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許興植, “高麗의 梁宅椿 墓誌,” 文化財, 第17輯(1984)

黃壽永, “高麗 崔沆과 崔珙의 墓誌,” 考古美術, 第106·107輯(1970)

6) 誌石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李關暎 編, 韓國金石文 追補(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梨花女大博物館, 명기와 묘지(서울: 梨花女大博物館, 1978)

黃壽永, 朝鮮金石遺文(서울: 一志社, 1981)

溫陽民俗博物館 編,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 研究(溫陽: 溫陽民俗博物館, 1992)

7) 裴永東, “朝鮮時代 誌石의 性格과 變遷,”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 研究(1992), pp.189~231.

(1) 墓地名 : “有誌有銘者”로 지석에 誌文과 銘文이 함께 실려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문은 傳과 같은 것으로 散文體이며, 명문은 詩와 같은 것으로 韻文體를 말한다. 誌文體에는 正體와 變體의 2종류가 있는데, 정체는 오로지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변체는 사실을 기록한 것에다 論議를 덧붙인 것이다. 銘文體에는 三言體, 四言體, 七言體, 雜言體, 散文體 등이 있다.

(2) 墓誌銘 并序 : ‘墓誌銘并敘’라고도 하며 지석에 誌文과 銘文이 함께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序文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誌文만 있고 銘文이 없거나 명문만 있고 지문이 없는 것을 別體라고 하는데, 이것은 序文과 誌文만 있든가 아니면 序文과 銘文만 있는 것을 말한다. 서문은 表題文을 말하며 死者의 생전의 품계, 벼슬, 성명 등을 正式名稱 그대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3) 墓誌 : ‘有誌無銘者’로 지석에 실린 誌文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死者의 一代記를 傳記體로 적은 散文體이다.

(4) 墓銘 : ‘有銘而無誌者’로 지석에 銘文만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誌라고 하고서도 단지 銘만 있는 것, 銘이라고 하고서도 단지 誌만 있는 것, 銘을 誌라고 表題를 부치거나 誌를 銘이라고 표제를 부친 것들은 모두 別體이다.

(5) 權厝誌 : ‘誌某’라고도 하며 ‘其未葬而權厝者’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시신을 假埋葬하고 그 사연을 적은 지석의 종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드문 편이다.

(6) 續誌 : ‘後誌’라고도 하며 ‘殯後葬而再誌者’로 禮葬을 올릴 때 지석을 만들었다가 후에 사정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만든 것을 말한다. 續誌는 夫婦를 合葬할 때나 改葬할 때, 後孫이 잘 되어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7) 歸附誌 : 후손이 있는 곳이 아니거나 他鄕에서 死去하였을 때, 후손들에 의해서 시신을 운반하여 先山에 옮겨 장례를 모셨을 때 만든 지석이다.

(8) 遷附誌 : ‘葬于他所而後遷者’로 다른 곳에 우선 장례를 모셨다가 나중에 시신을 옮겼을 때 제작한 지석을 말한다. 夫婦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死去하여 誌石을 제작하였다가 나중의 死者와 合葬할 때에 改葬하거나 附葬되는 死者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다.

(9) 蓋石文 : ‘刻於蓋者’로 지석의 蓋石에 새긴 글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석문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지석을 막론하고 2매의 版石이나 陶版으로 된 지석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誌石盒의 뚜껑에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개석의 측면과 주위에 唐草紋이나 魂神들을 새기고 중앙부에 篆書로 死者를 일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벼슬 이름과 姓氏만을 새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장식문양의 조각은 없이 단지 楷書로 死者의 ‘벼슬이름+姓+公之墓’ 혹은 ‘벼슬이름+姓+公之墓+墓의 坐向’ 등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誌文과 함께 수록되어 表題文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0) 墓誌 : ‘墓塼銘’이라고도 하며 ‘刻於塼者’로 벽돌에 새긴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11) 墳版文 : ‘墓版文’이라고도 하며 ‘書於木版者’로 목판에 새긴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12) 墳銘 : ‘墳記’라고도 하며 佛僧의 지석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널리 쓰이지는 않으나 葬誌, 墳記, 墳誌, 壙銘, 槨銘, 埋銘, 葬銘, 石誌, 墓石, 石銘, 墓志 등의 명칭이 쓰이기도 하였다.

2. 誌石의 性格

일반적으로 지식의 성격은 기록의 내용, 제작의 방법, 기문, 장례의 풍습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할 있는 기록의 내용에 의한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8)과 같다.

지식의 기록의 내용에 의한 성격은 蓋石文, 表題文, 誌文, 銘文 등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蓋石文에는 일반적으로 ‘간략한 벼슬+姓+公之墓’의 형태로 기록되며, 때로는 坐向이나 제작시기가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表題文에는 일반적으로 ‘品階+官職+本貫+姓+公之墓誌銘’의 형태로 기록되며, 때로는 ‘묘지명’이라는 명칭 대신에 ‘묘지’ 또는 ‘묘명’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고 묘의 좌향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다.

表題文에는 일반적으로 ‘品階+官職+本貫+姓+公之墓誌銘’의 형태로 기록되며, 때로는 ‘묘지명’이라는 명칭 대신에 ‘묘지’ 또는 ‘묘명’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고 묘의 좌향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다.

誌文에는 일반적으로 본관, 성씨, 이름, 선대의 계보와 그들의 관직과 시호, 생년월일시 등의 인적사항과 行蹟, 사망연월일시, 장례와 이장시기, 묘의 위치와 좌향, 가족관계 등의 사항이 기록된다. 銘文에는 망자의 행적과 공덕을 기리고 추앙하기 위한 頌德詩가 기록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지식이 제작된 시대와 제작의 방법, 被葬者의 家門, 장례의 풍습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Ⅲ. <尹鶴 誌石>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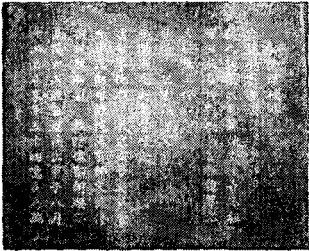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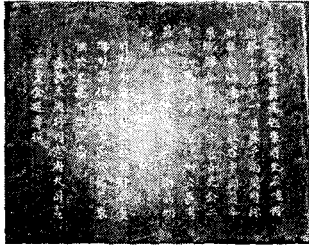
1. 誌石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

<尹鶴 誌石>의 지식판은 1매이며 지식문은 前後 兩面에 새겨져 있다.

8) 上揭書.

지석판의 재질은 精選된 烏石이며, 한번의 판 작업과 여러 번의 물갈이로 이루어진 듯하다. 지석판의 크기는 길이 25.0cm, 너비 31.0cm, 두께 2.5cm이다.

<表 1> 誌石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

內容 面數	圖	版 原 文	特 徵
前 面		弘文館校理尹公墓誌銘 / ⁹⁾ 公諱鶴字善鳴號德巖姓尹氏漆/ 原人新羅太師諱始榮後也高祖/ 諱祖生文科判決事曾祖諱莘老/ 文科益山倅祖諱弼副司果考諱/ 仲任 世宗戊午文科龍川倅妣/ 南陽洪氏判書孝禮女公少好讀/ 書不事他技 成宗壬子文科歷/ 兵曹正郎司諫院正言弘文館修/ 撰校理知製 教時值昏朝遜跡/ 南陽以山水自娛燕山甲子八月/ 十二日卒享年五十四噫良馬踰/	· 세로 25.0cm · 가로 31.0cm · 行字 : 12行13字 · 隔字 : 6字 · 字數 : 150字 · 書體 : 楷書體 · 새김 : 陰刻 · 材質 : 精選된 烏石 · 處理 : 물갈이 처리 · 現狀 : 良好 · 版面 : 良好 · 保存 : 良好
側 面		一	· 두께 2.5cm
後 面		足高鳥墜冀遠近章甫無不嗟惜/ 同年十月十一日葬于南陽府旆/ 知申面柳池洞大壯谷中岡負辛/ 原配韓山李氏進士秀女先公二/ 年卒初葬岡子原改附公墓有/ ¹⁰⁾ 男二人長倚衡進士次居衡尙幼/ 銘曰 / 有行有德百世有光早辭榮貴/ 物外徜徉儼若風節煥然文章/ ¹¹⁾ 惟公之墓人誰毀傷 / ¹²⁾ 嘉義大夫行司憲府大司憲/ 安東金延壽撰 /	· 세로 25.0cm · 가로 31.0cm · 行字 : 12行13字 · 隔字 : 16字 · 字數 : 140字 · 書體 : 楷書體 · 새김 : 陰刻 · 材質 : 精選된 烏石 · 處理 : 물갈이 처리 · 現狀 : 良好 · 版面 : 良好 · 保存 : 良好

9) 「칠원윤씨대동보」에는 <校理公 墓誌文>으로 收錄되어 있다.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칠원윤씨대동보(서울 : 창문사, 2001), 제1책, pp.428~429.>

10) 「칠원윤씨대동보」에는 '有'자 아래에 '二'자가 補入되어 있다. <上揭書.>

11) 「칠원윤씨대동보」에는 '煥'자가 '燦'자로 記錄되어 있다. <上揭書.>

12) 「칠원윤씨대동보」에는 '惟'자가 '唯'자로 記錄되어 있다. <上揭書.>

지석문은 물갈이로 잘 다듬어진 지석판의 양면에 陰刻되어 있다. 지석문의 서체는 楷書體이며, 各面의 行數와 字數는 12行13字이다. 지석문의 분량은 전체 24항에 22자가 隔字되어 도합 290자이다.

2. 誌石文의 翻譯

<尹鶴 誌石>의 誌石文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弘文館 校理 尹公 墓誌銘

공의 諱는 鶴이요 字는 善鳴이며 [雅]號는 德巖이며 姓은 尹氏이니 漆原 後人이다. 신라시대 [太子]太師였던 휘 ‘始榮’의 후손이다. 高祖의 휘는 ‘祖生’이니 文科에 及第하여 判決事 벼슬을 역임하였고 曾祖의 휘는 ‘莘老’이니 문과에 급제하여 益山郡守를 역임하였으며, 祖考의 휘는 ‘弼’이니 副司果 벼슬을 역임하였고 아버지의 휘는 ‘仲任’이니 世宗大王 20(戊午, 143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龍川郡守를 역임하였다. 어머니는 南陽 洪氏이니 판서 벼슬을 역임한 ‘孝禮’의 딸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다른 技藝에는 從事하지 아니하였다. 成宗大王 23(壬子, 149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兵曹正郎과 司諫院 正言 및 弘文館의 修撰, 校理, 知製敎 등을 역임하였는데 때마침 燕山君의 혼미한 시대를 만나 南陽에서 은거하며 山水를 즐기면서 살았다. 燕山君 10(甲子, 1504)년 8월 12일에 卒去하니 향년 54세였다. 아! 좋은 말이 발이 굽고 높이 날으려는 새가 날개가 꺾이어 떨어지니, 원근의 선비들이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成宗(1504)년 10월 11일에 京畿道 南陽郡 旆知申面 柳池洞 大壯谷 가운데에 있는 산기슭의 辛坐(동남동향)에 장례하였다. 配位는 韓山 李氏이니 進士 ‘秀’의 딸이며 공보다 2년 먼저 卒去하여, 처음에 같은 산기슭의 子坐(남향)에 장례하였다가 공의 묘소에 附葬하였다. 아들 兄弟를 두었으니 長男은 ‘倚衡’이니 進士에 合格하였고 次男인 ‘居衡’은 아직은 어린이다. 銘文을 지어 이르노니,

品行도 있고 德行도 있어 百世토록 榮光이 있을지나
일찍이 富貴榮華 모두 버리고 物慾 밖에서 살았으니!
儼然한 風貌와 節概 文章 속에서 빛나고 있으려나니
이러한 尹公의 묘소 그 누가 감히 훼손할 수 있으리!

嘉義大夫 行 司憲府 大司憲 安東 金延壽 撰하다.¹³⁾

13) 金延壽 撰, 尹鶴 誌石. 淸州大學校博物館 所藏. 前後面.

IV. 誌石文의 內容

본 지식의 지식문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동시대의 전형적인 기술방식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 지식문은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9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식문의 분량은 18·19세기에 이르러 武官職에까지 지식의 사용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한다.

1. 表題와 姓 및 諱

지식문의 表題의 내용은 대개 品階, 官職, 本貫, 姓, 墓誌銘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때로는 ‘묘지명’이라는 명칭 대신에 ‘墓誌’, ‘墓銘’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에 덧붙여 혹 墓의 坐向이 붙여 지기도 한다.

본 지식의 표제는 ‘弘文館校理尹公墓誌銘’으로 기록¹⁴⁾되어 있다. 또한 본 지식문에는 公의 姓, 本貫, 諱, 字, 號 등이 기록¹⁵⁾되어 있다. 본 지식문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公의 姓은 ‘尹氏’이고 휘는 ‘鶴’이며, 字는 ‘善鳴’이고 본관은 ‘漆原’임을 알 수 있다.

2. 先祖의 系譜

본 지식의 지식문에는 公의 先祖의 系譜에 대하여도 간략히 기록¹⁶⁾되어 있다.

신라시대 태사를 지낸 시조 尹始榮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判決事를 지낸 高祖 ‘祖生’, 문과에 급제하여 益山郡守를 지낸 曾祖 ‘莘老’, 副司果를 지낸 祖考 ‘弼’, 세종 20(戊午, 143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龍川郡守를 지낸 考 ‘仲任’에 이르기까지 5대 先祖에 관하여 서술되어 있다.

또한 公의 母親의 家系에 관해서도 다소 언급되고 있는 바, 公의 모친은 南陽 洪氏 判書 ‘孝禮’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14) 弘文館校理尹公墓誌銘. <上揭誌石, 前面.>

15) 公諱鶴字善鳴號德巖姓尹氏漆原人. <上揭誌石, 前面.>

16) 新羅太師諱始榮後也高祖諱祖生文科判決事曾祖諱莘老文科益山倅祖諱弼副司果考諱仲任世宗戊午文科龍川倅妣南陽洪氏判書孝禮女. <上揭誌石, 前面.>

본 지식문에 나타나는 바와 「칠원윤씨대동보」에 나타나는 바를 중심으로 공의 系譜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2> 漆原 尹氏 判決事公派 系譜

尹始榮(始祖)--璜--鉅富(中始祖)--瑩(2)--弘中(3)--勳(4)--鳴道(5)--榮(6)--元綱(7)--蕤(8)--殷卿(9)--博(10)--世得(11)--乙富(12)--佐(13)--松禪(14)--養三(15)--秀(16)--吉甫(17)--桓(18)--天敦(19)--祖生(20, 判決事公派)--莘老(21, 郡守公派)--彌(22)--仲任(23)--鶴(24)--倚衡(25)--俊(26)--殷鼎(27)--安命(28)--宇(29)--彦承(30)--惕(31)--商廈(32)--梓(33)--得鍾(34)--擘(35)--鳳喆(36)--德善(37)--和遠(38)--鍾慶(39)--明洙(40)--雲錫(41)

(1) 高祖 ‘祖生’

공의 고조인 ‘祖生’은 문과에 급제하고 通政大夫 掌禮院 判決事를 역임하였다. 배인은 坡州 廉氏였다. 친정아버지는 左史승을 역임한 坡州 廉邦慶의 딸이었으며, 아들 셋을 낳았다. 繼配人은 政丞을 역임한 海州 鄭愨의 딸이었다. 묘는 충남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 明德峰의 서쪽 기슭에 3위가 합장되어 있다. 碑碣과 望柱石이 있는데 碑銘은 恩津 宋斗憲이 문장을 짓고 靑松 沈應宙가 글씨를 썼다.

공의 고조는 子孫萬代가 영화할 곳을 찾아서 산수가 아름다운 충청도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에 편안히 거주하고 영명한 입향의 선조였다.¹⁷⁾

(2) 曾祖 ‘莘老’

공의 증조인 ‘莘老’는 문과에 급제하고 益山郡守를 역임하였다. 配人은 未詳이다. 묘는 충남 청양군 정산면 大朴谷에 있다.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내지곡에 단비·상석·망주석 등이 있다. 비문은 15대손 전 검사 영학이 짓고 글씨는 17대 방손 의원이 쓴 것을 1995년 3월 일에 세웠다.¹⁸⁾

(3) 祖考 ‘彌’

공의 조고인 ‘彌’은 秉節校尉 副司果를 역임하였다. 배인은 吏曹佐郎를 역임한 韓山 李埤의 딸이었다. 묘는 충남 청양군 정산면 大朴谷에 있다.¹⁹⁾

17)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前掲書, 제1책, pp.764~780.

18)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前掲書, 제2책, p.31.

19)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掲書.

(4) 考 ‘仲任’

공의 考인 ‘仲任’은 자가 子弘이며 세종 20(戊子, 1438)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中訓大夫 龍川都護府使를 역임하였으며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 慶筵參贊官 春秋館 修撰官에 증직되었다. 沒年은 미상이다. 배인은 判書를 역임한 南陽 洪孝禮의 딸로 淑夫人에 추증되었다. 묘는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內池谷 子坐(남향)에 쌍분으로 있다. 묘갈·상석·望柱石 등 석물을 갖추었는데 비문은 15대 傍孫 義遠이 문장을 짓고 仁川後人 蔡舜鴻이 글씨를 쓴 것을 1995년 3월 일에 새로이 세웠다. 舊碑石은 계하에 매립하였다.²⁰⁾

본 지식의 지식문은 「칠원윤씨대동보」²¹⁾와 비교할 때, 지식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官職과 品階를 위주로 기록되어 그 先代를 이해하는데 다소의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본 지식의 지식문에 나타나는 바와 「칠원윤씨대동보」에서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公과 先代의 系譜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3. 性品과 行蹟

본 지식의 지식문에는 공의 性品과 行蹟에 관한 사항도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다른 技藝에는 從事하지 아니하였다”²²⁾는 기술을 통하여 공이 어려서부터 한결같이 공부에만 精進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은 “때마침 燕山君의 흥미한 시대를 만나 南陽에서 은거하며 山水를 즐기면서 살았다”²³⁾는 기술을 통하여 공의 성품이 자연을 즐기는 매우 단아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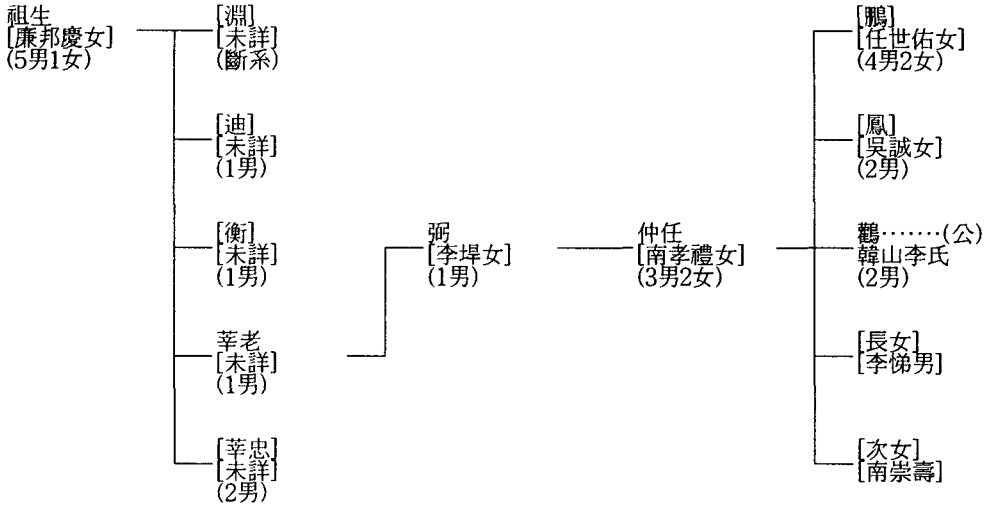
20)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21)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22) 公少好讀書不事他技. <上揭誌石, 前面.>

23) 時值昏朝逕跡南陽以山水自娛. <上揭誌石, 前面.>

<表 3> 誌石文과 「칠원윤씨대동보」에 나타난 先世의 系譜



4. 官職

본 지식의 지식문에는 공의 官職에 관하여도 “成宗 임자(149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兵曹正郎과 司諫院 正言 및 弘文館의 修撰, 校理, 知製敎 등을 역임하였다”²⁴⁾는 정도로 매우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朝鮮王朝實錄」에서도 공에 관련된 기사는 검색되지 않았다.

본 지식문에 나타나는 바를 「칠원윤씨대동보」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4> 尹鶴의 生涯와 官職

西紀	干支	朝代	日月	年歲	內	容	備	考
1451	신미	문종	01	01	公 出生(推定)			
1474	갑오	성종	05	24	伯兄 '鵬' 武科 及第		大同譜 ²⁵⁾	
1492	임자	성종	23	42	文科 及第, 司諫院 正言·兵曹正郎·弘文館 修撰·校理兼知製敎 歷任		誌石文·大同譜 ²⁶⁾	
1495	을묘	연산	01	45	南陽에 隱居		誌石文	
1498	무오	연산	04	48	長男 倚衡·進仕 及第		大同譜 ²⁷⁾	
1502	임술	연산	08	52	配人 閑山 李氏 卒去		誌石文·大同譜 ²⁸⁾	

24) 成宗壬子文科歷兵曹正郎司諫院正言弘文館修撰校理知製敎. <上揭誌石, 前面.>

25)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前揭書, 제2책, p.31.

26)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제2책, pp.33~34.

27)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제2책, p.33.

1504	갑자	연산 10 08 12	54	公 卒去	誌石文·大同譜 ²⁹⁾
1510	경오	중종 05	+6	長孫 ‘俊’ 進士 及第 次孫 ‘傑’ 生員 及第	大同譜 ³⁰⁾ 大同譜 ³¹⁾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尹鶴 誌石>의 지식문에 나타나는 전기적 기록은 2001년에 공간된 「칠원윤씨대동보」에 비하여 훨씬 소략하다. 그러나 尹鶴의 文集이나 遺稿 및 그의 傳記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본 지식에 수록된 傳記의 內容은 그나마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生沒과 葬禮

본 지식의 지식문에는 공의 生沒과 葬禮에 관하여도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지식문에 의하면 “공은 연산군 10(甲子, 1504)년 8월 12일에 卒去하니 享年 54세였다”³²⁾라고 공의 沒年과 享年을 기록하고 있다. 공의 향년으로 추정하면 공은 문종 원(辛未, 1451)년에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식문에 의하면 “동(1504)년 10월 11일에 京畿道 南陽郡 旌知串面 柳池洞 大壯谷 가운데에 있는 산기슭의 辛坐(동남동향)로 장례하였다”³³⁾고 하였다. 또한 공보다 2년 먼저 즐거한 配位 韓山 李氏는 처음에 같은 산기슭에 子坐(남향)로 장례하였다. 그러나 2년 후에 공이 즐거하여 장례할 때에 李氏의 묘를 공의 묘소에 附葬하였던 것이다.³⁴⁾

조선시대 지식에서 보이는 장례의 유형 가운데 단독장례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참작한다면, 본 지식은 상대적으로 드문 附葬의 사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後孫의 系譜

본 지식의 지식문에는 공의 후손의 계보에 관하여도 2세까지 기록³⁵⁾되어 있다

28)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29)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30)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제2책, p.64.

31)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제2책, p.70.

32) 燕山甲子八月十二日卒享年五十四. <前揭誌石, 前面.>

33) 同年十月十一日葬于南陽府旌知串面柳池洞大壯谷中岡負辛原配韓山李氏…先公二年卒初葬同岡子原改附公墓. <上揭誌石, 後面.>

34) 同年十月十一日葬于南陽府旌知串面柳池洞大壯谷中岡負辛原配韓山李氏進士秀女先公二年卒初葬同岡子原改附公墓. <上揭誌石, 後面.>

(1) 公

공의 휘는 ‘鶴’이고 字는 善鳴이며 호는 德巖이었다. 문종 원(辛未, 1451)년에 출생하여 성종 23(壬子, 1492)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시간원 정언, 병조정랑, 홍문관 수찬·교리·검지제교 등을 역임하였다. 연산군 10(甲子, 1504)년 8월 12일 졸거하였다. 配人은 진사를 지낸 韓山 李秀의 딸로 연산군 8(壬戌, 1502)년에 졸거하였다. 묘는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유포리 대장곡 가운데 기슭의 辛坐(동남동)에 합장으로 모셨다. 床石·石人·表石·碑碣 등을 갖추었는데, 갈명은 淸州 韓澤洙가 짓고 지석은 安東 金延壽가 지었다.³⁶⁾

(2) 아들(子)

공의 長男 ‘倚衡’은 연산군 4(戊午, 1498)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通政大夫로 文川郡守를 역임하였으며,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증직되었다. 몰년은 미상이다. 배인은 貞夫人에 추증된 昌寧 曹氏였다. 묘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원천리 뒷산에 남편과 함께 합장되었다. 공의 次男 ‘居衡’은 司憲府 監察을 역임하였다.³⁷⁾

(3) 孫子

공의 長孫 ‘俊’의 자는 智象이며 연산군 시대에 출생하였다. 중종 5(庚午, 1510)년에 진사가 되고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배인은 恩津 宋氏였다. 묘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원천리 뒷산의 아버지 묘소 앞 庚坐(동북동향)에 합장되어 있다.³⁸⁾ 次孫 ‘傑’의 자는 挺之이며 중종 5(庚午, 1510)년에 생원이 되었다. 배인은 陽川 許氏였다. 묘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鷹峰 오른 쪽 기슭의 辛坐(동남동향)에 쌍분으로 있으며, 망주석·상석 등이 있다.³⁹⁾

(4) 曾孫子

공의 曾孫子 ‘殷鼎’은 자가 輔汝로 명종 때에 진사가 되고 通訓大夫 木川縣監을 역임하였다. 묘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원천리 뒷산에 세분이 합장되어 있다.⁴⁰⁾ 배인은 僉節制使를 역임한 開城 高乃城의 딸이었으며, 조부는 현감을 역임한 ‘世弼’이고 증조부는 진사를 역임한 ‘孟仁’이었으며, 외조부는 廣州 李克達이었다. 묘는 남편의 오른쪽에 합장되어 있다. 繼配人은 注簿를 역임한

35) 有男二人長倚衡進士次居衡尙幼. <上揭誌石, 後面>

36)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前揭書, 제2책, pp.33~34.

37)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38)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제2책, p.64.

39)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제2책, p.70.

40)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제2책, p.64.

南陽 洪右弼의 딸이었으며, 祖父는 寺正을 역임한 ‘浩’이고 증조부는 兵馬節度使를 역임한 ‘貴’였다. 묘는 남편의 왼쪽에 합장되어 있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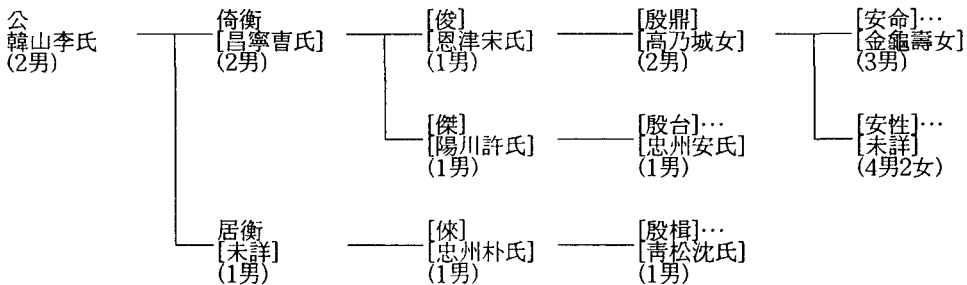
(5) 高孫子

공의 高孫子 ‘安命’은 字가 復初로 선조 21(戊子, 1588)년에 출생하였다. 承仕郎을 역임하고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에 증직되었다. 배인은 安東 金龜壽의 딸로 淑夫人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는 寺正을 역임한 ‘富寧’이고 증조부는 진사를 지낸 ‘洞’이었다. 묘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원천리 뒷산에 남편과 함께 합장되어 있다.4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尹鶴 誌石>의 지식문에 나타나는 후손에 관련된 계보는 「칠원윤씨 대동보」와 비교할 때 매우 소략한 편이다.

본 지식의 지식문에 나타나는 바와 「칠원윤씨대동보」43)에서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과 後世의 系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5> 誌石文에 나타난 後世의 系譜



8. 銘文

본 지식의 지식문에는 安東 金延壽가 찬술한 銘文이 수록되어 있다.

명문에는 “品行도 있고 德行도 있어 百世토록 榮光이 있을지나 일찍이 富貴榮華 모두 버리고 物慾 밖에서 살았으니! 儼然한 風貌와 節概 文章 속에서 빛나고 있으려나니 이러한 尹公의 묘소

41)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제2책. pp.64~65.

42)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43)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上揭書, 제1책. pp.764~780.

그 누가 감히 훼손할 수 있으리!”⁴⁴⁾라고 하였다.

7. 誌石文의 撰者

지석의 지석문에는 “嘉義大夫 行 司憲府 大司憲 安東 金延壽 撰”⁴⁵⁾으로 기록하고 있어, <尹鶴誌石>의 지석문이 안동 金延壽에 의하여 찬술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尹鶴誌石>의 지석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현재 尹鶴의 文集이나 遺稿 및 그의 傳記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지석이 지니는 傳記資料로서의 가치는 크다고 할 것이다.

V. <尹鶴誌石>의 製作者와 製作時期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지석의 제작자에 관하여 명시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지석문의 찬자인 金延壽(?~1515)의 沒年으로 추정할 때 공의 아들 尹倚衡과 尹居衡 및 공의 손자 尹俊과 尹傑 등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지석에는 지석문의 찬자는 명시⁴⁶⁾되어 있으나 정확한 제작의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지석문의 서자나 각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석문의 撰者를 중심으로 지석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석문의 찬자 金延壽에 관하여 「安東金氏大同譜」에는 “字而康 生員文科 止大司憲 墓定安 配貞夫人 順天金氏 父左議政 節齊宗瑞 墓上同”⁴⁷⁾이라 기록되어 있어, 김연수의 字를 비롯하여 墓所, 주요관직, 묘소 및 配人の 본관과 系譜 그리고 묘소 등이 기록되고 있으나, 김연수의 생몰년에 대한 기록은 없다.

「安東金氏大同譜」의 기록을 볼 때 김연수는 字가 ‘而康’이며 生員試와 文科試를 거쳐 관직이 大司憲에 이르렀으며 墓所는 忠南 公州의 定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貞夫人은 順天 金氏로 左議政 節齊 ‘宗瑞’의 딸이며 墓所는 南 韓 김연수와 같은 곳에 있음⁴⁸⁾을 알 수 있다.

44) 有行有德 百世有光 早辭榮貴 物外徜徉 儼若風節 煥[燦]然文章 惟[唯]公之墓 人誰毀傷. <前揭誌石, 後面>

45) 嘉義大夫行司憲府大司憲安東金延壽撰. <上揭誌石, 後面>

46) 嘉義大夫行司憲府大司憲安東金延壽撰. <上揭誌石, 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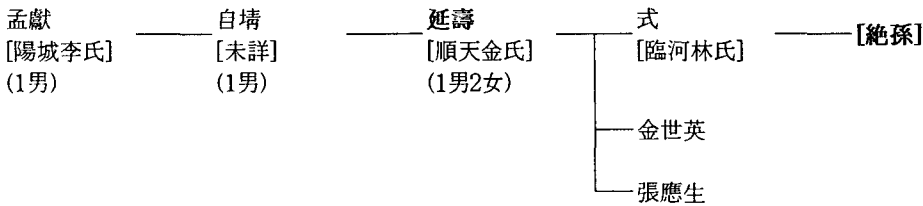
47) 安東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安東金氏大同譜, 第4冊(大田: 譜典出版社, 1980), p.1.

「安東金氏大同譜」를 중심으로 지식문의 찬자인 金延壽의 계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表 6> 安東 金氏 大司成公派 系譜

金闕智(始祖)--勢漢(2)--阿道(3)--首留(4)--郁甫(5)--仇道(6)--末仇(7)--柰勿王(8)--卜好(9)--習寶(10)--智證王(11)--眞宗(12)--欽運(13)--摩次(14)--法宣(15)--義寬(16)--魏文(17)--孝讓(18)--元聖王(19)--禮英(20)--均貞(21)--神武王(22)--文聖王(23)--安(24)--敏恭(25)--實虹(26)--孝宗(27)--敬順王(28)--殷說(29)--叔承(30)--日兢(31)--利諤(32)--義和(33)--民成(34)--孝印(35)--方慶(36)--愼(37)--商廈(38)--承澤(39)--昴(40)--九容(41, 大司成公派)--明理(42, 大2)--孟獻(43, 大3)--自靖(44, 大4)--延壽(45, 大5)--式(46, 大6)--絶孫

<表 7> 金延壽의 系譜



한편, 지식문의 찬자 金延壽와 관련하여 「朝鮮王朝實錄」의 기사 검색과 「安東金氏大同譜」 등을 통하여 나타난 바를 함께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8> 金延壽의 生涯와 官職

西紀	干支	朝代	日月	年歲	內	容	備	考
未詳					公 出生			大同譜
1491	신해	성종	22	07 28	承政院에 의해 從事官 任命 對象者로 擧論됨			實錄 ⁴⁹⁾
1492	임자	성종	23	03 25	兵曹에 의해 武才가 있는 文臣으로 錄啓됨			實錄 ⁵⁰⁾
1497	정사	연산	03	02 04	成均館典籍			實錄 ⁵¹⁾
1507	정묘	중종	02	03 06	江陵府使			實錄 ⁵²⁾
				11 09	司憲府에서 內贍寺正을 改正할 것을 建議			實錄 ⁵³⁾

48) 安東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上揭書.

49) 傳于承政院曰 … 宜擇年少有武才文臣及武臣 以授邊將之任 … 此人中可遣者 … 金延壽 … 啓之<春秋館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서울: 探求堂, 1986), 成宗 22年 7月 壬寅條>

50) 兵曹錄啓 … 金延壽 … 等十三人.<春秋館編, 上揭書, 成宗 23年 3月 乙未條>

51) 傳曰 聞有亂臣金宗瑞之後入朝者 然乎 … 吏曹啓 宗瑞本孫則無 外孫金延壽 今爲成均館典籍.<春秋館編, 上揭書, 燕山君 3年 2月 丙子條>

52) 江陵府使金延壽 … 金宗瑞之外孫 有清白之節.<春秋館編, 上揭書, 中宗 2年 3月 己酉條>

		11 10	臺諫이 內瞻寺正을 改正할 것을 建議	實錄 ⁵⁴⁾
		11 11	司憲府에서 內瞻寺正을 改正할 것을 建議 內瞻寺에 推薦理由 下問	實錄 ⁵⁵⁾ 實錄 ⁵⁶⁾
1510	경오	중종 05 10 12	鍾城府使	實錄 ⁵⁷⁾
1515	을해	중종 10 02 10	忠淸道節度使	實錄 ⁵⁸⁾
		02 16	清白吏 忠淸道節度使에게 唐表裏 下賜	實錄 ⁵⁹⁾
		02 23	卒去	實錄 ⁶⁰⁾
1516	병자	중종 11 01 14 +1	全羅道觀察使가 長興府使의 公務奉行이 廉潔謹慎하였다고 狀啓	實錄 ⁶¹⁾

安東 金延壽는 金宗瑞의 외손으로 절개가 있는 뛰어난 문인이었다.

중종 10(1515)년 2월 16일의 “清白卓異한 충청도 절도사 金延壽에게 唐表裏를 하사하라”는 傳敎記事⁶²⁾ 아래의 史論에 의하면, “김연수는 청렴하고 간소하였다. 일찍이 長興府使로 부임하는 길에 公州의 田庄에서 잘 때에 목사가 酒饌을 갖추어 가지고 가서 방문하였는데, 이튿날에 모두 封還하니 목사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苦節이라고 일컬었는데,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고 끝내 府使로 있다가 사망하였다”⁶³⁾고 하였다.

또한 중종 10(1515)년 2월 23일의 김연수의 卒記에는 “충청도 병마절도사 金延壽가 즐거하였다. 청백하기 때문에 특별히 唐表裏 한 벌을 하사하였는데 미처 받지 못하고 즐거하였다”는 기사⁶⁴⁾가 보이며, 그가 즐거한 이듬해인 중종 11년 정월 14일의 기사에는 전라도 관찰사 金瑄이 “長興府使 金延壽는 廉潔하고 謹慎하게 공무를 奉行하였습니다”라고 고과한 狀啓⁶⁵⁾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의 인물 됨됨이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본 지식의 지식문에는 그것을 찬술한 당시의 安東 金延壽의 품계와 관직이 “嘉義大夫 行 司憲

53) 憲府啓 … 內瞻寺正金延壽 以江陵府使 棄官而來 今不可授准職也.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2年 11月 戊申條>
 54) 臺諫啓 … 金延壽 … 等事.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2年 11月 己酉條>
 55) 憲府啓 … 金延壽等事 … 傳曰 … 金延壽 … 其遞之.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2年 11月 庚戌條>
 56) 傳曰 … 准期不敍有法 而擬金延壽於內瞻寺正者 何意歟 其問于吏曹.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2年 11月 庚戌條>
 57) 御朝講 … 得江曰 鍾城府使金延壽 爲今淸冷 凡事皆欲蠅之以法 … …如延壽者 可移於南方殘弊之邑 而以他人寬猛得中者代之.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5年 10月 乙未條>
 58) 以金延壽爲忠淸道節度使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10年 2月 戊戌條>
 59) 傳曰 清白卓異 … 忠淸道節度使金延壽 賜唐表裏 史臣曰 … 金延壽 淸而簡 嘗以長興府使赴任 歷宿公州 田庄 牧使備酒饌往訪 翌日乃盡封還 牧使大慚 時人目爲苦節 不容於世 竟止府使而死.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10年 2月 甲辰條>
 60) 忠淸道兵馬節度使金延壽卒爲 以清白 特賜唐表裏 襲 未及受而卒.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10年 2月 辛亥條>
 61) 全羅道觀察使金瑄狀啓 … 長興府使金延壽 … 等 廉謹奉公.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11年 正月 丙申條>
 62) 傳曰 清白卓異 … 忠淸道節度使金延壽 賜唐表裏.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10年 2月 甲辰條>
 63) 史臣曰 … 金延壽 淸而簡 嘗以長興府使赴任 歷宿公州田庄 牧使備酒饌往訪 翌日乃盡封還 牧使大慚 時人目爲苦節 不容於世 竟止府使而死.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10年 2月 甲辰條>
 64) 忠淸道兵馬節度使金延壽卒爲 以清白 特賜唐表裏 襲 未及受而卒.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10年 2月 辛亥條>
 65) 全羅道觀察使金瑄狀啓 … 長興府使金延壽 … 等 廉謹奉公. <春秋館 編, 上揭書, 中宗 11年 正月 丙申條>

府 大司憲”으로 기록⁶⁶⁾되어 있다. 김연수가 종2품의 가의대부 품계에 오른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그가 평생에 역임한 주요한 관직은 정6품의 成均館 典籍(1497)과 종3품에서 정3품의 江陵府使(1507), 內贍寺正(1507), 鍾城府使(1510), 長興府使(1515) 및 종2품의 忠淸道節度使(1515) 등이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김연수가 <윤관 지석>의 지석문을 찬술한 시기는 대체로 중종 10(乙亥, 1515)년 무렵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는 <윤관 지석>의 피장자인 윤관이 연산군 10(甲子, 1504)년에 졸거한 것과는 시간적으로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연산군 4(戊午, 1498)년에 공의 長男 ‘倚衡’이 進仕에 及第하고 공이 졸거(1504)한 6년 뒤인 중종 5(庚午, 1510)년에 공의 長孫 ‘俊’이 進士에 及第하였으며 동(1510)년에 공의 次孫인 ‘傑’이 生員에 급제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공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활발한 관직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지석은 공이 사거한지 10년이 지난 후에 공의 아들과 손자들의 주도하에 묘소를 새롭게 정비할 때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중심으로 볼 때, 본 <尹鶴 誌石>의 제작자와 제작의 시기는 공이 사거한지 10년이 지난 중종 10(乙亥, 1515)년 무렵에 공의 아들과 손자들의 주도하에 공의 묘소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안동 김연수에게 지석문을 부탁하여 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VI. 結論

이상에서 현전하는 <尹鶴 誌石>의 현상과 지석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구한 바,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誌石은 일반적으로 被葬者의 本貫, 諱,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가족관계, 묘의 위치와 坐向 등이 기록되므로 同 時代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금석학적 자료이다.

(2) <尹鶴 誌石>은 현재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3) <尹鶴 誌石>의 지석판은 총 1매 양면이며, 재질은 精選된 烏石이다. 지석은 한번의 판 작업과 여러 번의 물갈이로 이루어진 듯하며, 지석판의 크기는 길이 25.0cm, 너비 31.0cm, 두께 2.5cm이다. 지석문은 지석판의 前後 兩面에 陰刻되어 있으며, 지석문의 서체는 楷書體이며, 各面의 行數와 字數는 12行 13字이다. 지석문의 전체 분량은 도합 290자의 매우 짧은 분량이다.

(4) <尹鶴 誌石>의 지석문의 내용은 지석의 表題를 비롯하여 피장자의 姓과 諱, 先祖의 系譜, 性品과 行蹟, 官職, 生沒과 葬禮, 後孫의 系譜, 銘文 및 誌石文의 撰者 등 9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66) 嘉義大夫行司憲府大司憲安東金延壽撰. <前揭誌石, 後面.>

(5) <尹鶴 誌石>의 지식문은 절개가 뛰어난 청백리였던 安東 金延壽에 의하여 찬술된 것이며, 그는 조선초기의 유명한 학자요 문신이었던 金宗瑞의 외손이었다.

(6) <尹鶴 誌石>의 제작자와 제작의 시기는 공이 사거한지 10년이 지난 乙亥(1515)년 무렵에 공의 아들과 손자들의 주도하에 공의 묘소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안동 김연수에게 지식문을 부탁하여 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7) <尹鶴 誌石>의 지식문은 현재 윤관의 文集이나 遺稿 및 그의 傳記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傳記資料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것이다.

參考文獻

金延壽 撰. 尹鶴 誌石. 淸州大學校博物館 所藏.

朴文烈 “洪廷命 誌石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3), pp.135~154.

裴永東 “朝鮮時代 誌石의 性格과 變遷.”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 研究(溫陽: 溫陽民俗博物館, 1992), pp. 189~231.

安東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安東金氏大同譜. 全10冊. 大田: 譜典出版社, 1980.

溫陽民俗博物館 編.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 研究. 溫陽: 溫陽民俗博物館, 1992.

鄭劑奎, 金貞熙. “崇禎 甲午年銘 李齊說 誌石,” 忠淸大學博物館報. 淸州, 忠淸大學博物館, 2002. pp. 80~100.

淸州大學校博物館 編. 博物館圖錄. 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燕山君日記).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中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칠원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칠원윤씨대동보. 전11책. 서울: 창문사, 2001.